환황해포럼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Pan-Yellow Sea Forum Preparatory Meeting

the First Step toward a Prosperous Peace Community of Asia

2015. 11. 20.(금), 롯데 부여리조트(사비홀)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포럼의 주관을 맡은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환황해 포럼을 위해 찾아 와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열리는 이 곳 부여는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황해를 무대로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쳤던 고대 해양왕국 백제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유서 깊은 역사 도시 부여에서, 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과 국가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한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황해는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 통로였습니다. 황해를 통해 불교, 유교 등 동아시아 문명이 전파되었고, 황해를 매개로 환황해 권역 국가와 지역들의 무역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황해가 갈등의 장소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시대 황해는 전쟁과 분열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다시 황해는 평화와 교류의 중심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오늘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황해를 둘러싼 지역과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 속에서, 그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조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환황해 시대를 위한 충남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이어지는 첫 번째 분과에서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이라는 주제를, 두 번째 분과에서는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이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포럼을 위해 특별히 멀리서 여러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21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김기영 충청남도 의회 의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과와 두 번째 분과의 좌장을 맡아주신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조라운드테이블의 패널을 맡아주시기 위해 멀리서 찾아와 주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님,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과에서 패널 역할을 해 주실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교수님,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님, 두 번째 분과에서 패널을 맡아주신 추이순지 저장대학교 교수님, 유기꼬 후카가와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님,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님, 허재영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정을 이끄시고 계시고 오늘 직접 기조라운드테이블 좌장을 맡아주신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하여 환황해 시대 충청남도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그리고 황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비전과 과제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훌륭한 통찰과 현명한 대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모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Opening Address

Good afternoon

I am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which has organized today's forum.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 welcome to distinguished guests from Korea and abroad, who are gathered today for the Pan-Yellow Sea Forum.

Buyeo, the host city of today's forum, was the capital of the ancient Baekje Kingdom, which engaged in vigorous maritime activities 1,500 years ago in the Yellow Sea. Having said that, it is meaningful that the Pan-Yellow Sea Forum takes place in Buyeo, which joined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earlier this year, to discuss the creation of the East Asian Peace Community for countries and regions surrounding the Yellow Sea.

Historically, the Yellow Sea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exchange of the East Asian civilization. The Yellow Sea served as a channel through which the Eastern Asian civilization and influences such as Buddhism and Confucianism spread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Pan-Yellow Sea also facilitated the trade and mutual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Yellow Sea.

On the other hand, the Yellow Sea was also the stage of conflicts and clashes. In particular,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Yellow Sea was plagued by wars and divisions. However, the Yellow Sea has emerged as a center for peace and exchange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Today, the Pan-Yellow Sea Forum is being held in Chungnam, as part of efforts to find concrete strategies and measures to realize the vision that countries in the Yellow Sea region should leave behind conflicts and wars and move toward peace and mutual prosperity.

Today's forum features three topics , staring from the Plenary Round Table on "The Roles of Chungnam for the Era of Pan-Yellow Sea". It will be followed by the first session on "Seeking out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and the second session on "Pan-Yellow S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year, the forum has brought together many experts from all around the world. On behalf of 2.1 million Chungnam people,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Kiyoung Kim, Chairma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for his hard works in the political area. I would like to extend may appreciation to Chung-in Moon,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and Choong-Yong Ahn,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who will preside over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I also pay respects to Kathleen Stephens,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who have travelled a long way to participate in the Plenary Round Table. I would like to extend gratitude to Zhang Xiaoming, professor of Peking University, and Joon-Hyung Kim, professor of Handong University,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first session as panel member, and Cui Shunji, professor of Zhejiang University, Yukiko Fukagawa, professor of Waseda University, Sung Hoon Lee, president of Sehan University, Jaeyoung Huh, Chair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and Insung Park, head of China Studies at the Chungnam Institute,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ession. In addition, I extend special thanks to Heejung Ahn,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who will preside over the Plenary Round Table and has exerted leadership in guiding Chungnam towards a successful future.

I hope today's forum will serve as a platform, which facilitates the exchange of deep insight and wise alternatives to define Chungnam's the role and future direction in the era of the Pan Yellow Sea and identify the vision and challenges that the East Asian Peace Community faces in the Yellow Sea region.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aff for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for making this forum happen.

Thank you.

November 2015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환영사

환황해 포럼에 참가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평화의 고장 충청남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난 13일 전 세계를 분노와 슬픔에 빠뜨린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광신적인 테러집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테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프랑스인과 세계인의 의지를 결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모든 종류의 폭력에 함께 맞설 것입니다. 테러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테러를 보며 저는 다시 한 번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자유는 오직 평화 속에서 가능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할 환황해 지역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과연 10년이고 100년이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환황해 지역은 견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환황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또 한편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 평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끊임없이 대결하고 무력 충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이미 신경전을 주고받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세기 전쟁으로 얼룩진 이 지역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친애하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을 통해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는 20세기 침략과 전쟁의 불행한 역사를 아시아에서 되풀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두가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돈과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하나의 시장, 긴밀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시아인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항구적인 평화가 환황해 지역에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유럽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이 과업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쟁을 반복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EU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수 천 년의 역사를 통해 유럽 못지않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시대는 수 천 년의 공동번영과 교류의 역사에 비하면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반목의 역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 갑시다. 오늘 논의할 경제와 환경, 생태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합시다. 이 주제들은 국가 간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 간에, 시민 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 사항입니다. 지자체간 교류나 포럼과 같은 실질적이고 다원화된 만남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협력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평화를 지킬 제도를 만들어가며 한 발씩 전진합시다. 아시아 시민 모두의 삶의 터전인 황해가 아시아의 지중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가에게 제안합니다.

한·중·일 3국은 이미 수 천 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한다면 더욱 굳건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낡은 20세기 대결의 질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패권주의나 국수주의가 이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와 기업들은 발 빠르게 이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정부 부문의 분발과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게 '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통일을 향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의 신뢰와 동의 없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우산 아래에서 주변국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때 통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일본과 깊은 역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충청남도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약속입니다. 하나의 시장, 더 빈번한 교류, 그리고 안정된 평화 질서 속에 충청남도는 동북아 교류의 허브였던 백제의 영광을 재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꿈을 향해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다듬고 의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씨앗은 이미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 영웅 안중근 의사가 뿌린 것입니다. 사형을 앞둔 약소국의 청년이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동양평화론'을 만들었습니다. 한·중·일의 상설 회의체, 공동은행, 공동평화군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무려 80년이나 앞선 혁명적 주장입니다. '동양평화론'은 제국주의 시대에 완성하기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우리는 이 미완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바로 이 '환황해 포럼'에서 아시아와 세계시민들과 함께 '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아시아 시민 여러분!

중국의 고사에 해불양수(海不讓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황해는 그 너른 품으로 아시아인들의 번영과 전쟁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1400 여 년 전 동북아 고대 왕국들은 황해를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앞선 선진 문물이 황해를 건너 전해지고, 숭고한 종교와 학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대 국가 백제의 역사 유적이 동북아 3국의 평화적 교류와 번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세기 말과 20세기, 황해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패권 경쟁, 그리고 동족상잔이 이어졌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었던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그리고 운양호 사건. 동북아 패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겨뤘던 청일전쟁. 동족 간에 피를 흘린 6.25와 지금까지 반복되는 남북간의 해전까지, 지난 100년 동안 황해는 슬픔과 고통의 바다였습니다. 이제 다시 황해를 어머니 품과 같은 공존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갑시다. 21세기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이 포럼에 참석하신 아시아와 세계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Welcoming Address

Distinguished guests for the Pan-Yellow Sea Forum!

I sincerely welcome you to Chungnam Province, known for its historical value and peaceful atmosphere.

Today we are gathered here to discuss peace and mutual prosperity in the Pan-Yellow Sea area. I am pleased and grateful to join you today for this meeting today.

Before talking about peace, we cannot but to think of the series of terrorist attacks in Paris, France on November 13th, which the world has witnessed with profound sorrow and indignation.

Around 130 innocent civilians lost their lives to the acts of fanatic terrorists. However, terrorism has not, and will not, undermine the commitment that the people of France and the world show for peace and democracy.

We will stand united in the pursuit of peace and stand against all forms of violence. My heart goes to the victims, the injured, their loved ones and the people of France.

The recent tragedy reminds us of the paramount importance of peace. Peace is the only way that leads us to prosperity and freedom. We should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peace.

Let us turn to the Pan-Yellow Sea area, which is today's topic. Would it be possible to keep the peace for the next decades and centuries in the area? Unfortunately, the Pan-Yellow Sea area has yet to establish a solid framework for peace.

The Pan-Yellow Sea area is one of the most dynamically developing but also the most heavily armed parts of the world. A small shock to the system may unravel the peace in the area.

For instanc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in constant conflict and bloody clashes. Military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continue to escalate over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defense system.

Now is time to ask: Do we choose to work together? If the answer is yes, what efforts should we make to keep the tragic history of the past century from repeating itself?

Dear Citizens of Asia and the World!

In my speech on the occas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I made a proposal for the creation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I proposed that we should prevent the tragic history of wars and invasions in the 20th century from taking place in Asia.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reiterate the proposal. I hope that all Asians – especially Koreans, Chinese and Japanese, to stand united as members of Asia. I hope the Pan-Yellow Sea will be a single market, which ensures free flow of capital and goods, and eternal peace with respect for the lives and dignity of all Asians through close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this regard, Europe is a half century ahead of Asia. France and Germany have been brought together, leaving the history of wars and conflicts behind. Armed conflicts between any EU member states are unthinkable.

I believe such changes can take place in Asia. Over thousands of years, countries in Asia have developed shared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as those in Europe have. The 20th century, torn by imperialism and colonialism, is only a momentary diversion from the countless years where Asia has prospered together through mutual exchanges. I am confident that Asia can move beyond the history of grievances and mistrust.

Let us start from the basics to build trust. Having said that, I believe economy,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are today's subjects, can be a good starting point. Despite diplomatic differences at the national level, these areas of mutual interests can bring together local authorities and civil societies. The exchanges and forums enable local governments to meet each other in a substantial and diverse way, consolidating cross-border partnerships. Then, we can take this to a higher level and move towards creating a rock-solid framework for peace. The Yellow Sea, home to people of Asia, can emerge as Asia's answer to the Mediterranean in Europe.

That is my proposal to all countries, which desire peace in Asia.

Korea,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depended on each other for centuries on their path to development. I believe nothing sums up the interdependent nature of the three countries better than this old Chinese saying: "If the lips are gone, the teeth will grow cold".

When the three countries share their vision for an Asian Peace Community, it will lead to a stronger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To this purpose, it is imperative to end the old order that prevailed during the conflict-filled 20th century. It is essential to join our forces to keep imperialism and nationalism from taking root in Asia.

We need to stand together, moving beyond ethnic and territorial borders towards the future of peace and mutual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Civil societies and businesses have already quickened their pace in this regard. It calls for greater efforts and commitment from the governments.

For Korea, the Asian Peace Community plays a key role in reunification. The cas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proves that trust and consensu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e a must for the two Koreas to be reunited. When neighboring countries are convinced that Korea's reunification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under the umbrella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Korea's reunification will be a natural course of event, not a remote possibility.

In addition, the Asian Peace Community promises new opportunities and economic prosperity for Chungnam, which is closest to China and has deep historic ties with Japan. A single market, more frequent exchanges and a stable order of peace will allow Chungnam to bring back the glorious days when the ancient Baekje Kingdom, served as a center of exchange in Northeast Asia.

Chungnam is committed to making the Asian Peace Community a reality. Chungnam will work together with its partners to identify elements for creating a shared vision. The first step in this regard was taken 100 years ago by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Jung-Geun Ahn. Prior to his execution, Ahn, a young man from Korea, a small and weak country, wrote an essay, "On Peace in East Asia" in his pursuit of eternal peace in Asia. In this work, Ahn proposed the organization of a standing committee with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creation of a joint bank and peacekeeping troops . It was a revolutionary idea that preceded the EU by eight decades.

"On Peace in East Asia" was an impossible dream during the era of imperialism. However, in the 21st century, we should take this dream closer to reality, and Chungnam will take the initiative.

Chungnam will make "The Pan-Yellow Sea Forum" a platform where the people of Asia, and the world, can work together in the name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Dear Citizens of Asia and the World!

here is an old Chinese saying that the sea does not reject any river streams. The Yellow Sea has embraced Asia through its history of conflicts and prosperity.

1,400 years ago, ancient kingdoms flourished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way of the Yellow Sea. The advanced culture crossed the Yellow Sea to spread knowledge and beliefs across the world. "Baekje Historic Areas", which the UNESCO has put on the World Heritage List earlier this year, are testament to the era of peaceful exchang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However,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20th century, the Yellow Sea was torn apart by imperial invasions, competition for hegemony and self-destructive wars. The Yellow Sea has been associated with pain and sorrow for the past 100 years, following a series of tragic events: the US expedition to Korea,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the Japanese Battle of Ganghwa, the Sino-Japanese War for hegemony in Northeast Asia, the fratricidal Korean War and naval clash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t is time to make the Yellow Sea a stage for prosperity and peace. Let us write a new chapter in history under the vision of the 'Asian Peace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all participants from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nk you

November 20, 2015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축 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21세기를 열어가는「2015 환황해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뜻 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멀리 해외에서 우리 道를 방문해주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님,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 장샤오밍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님, 추이순지 저장대 정치학과 교수님,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정치경제대 교수, 그리고 기조 발제를 해주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는 해양 실크로드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가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엉켜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은 커다란 진전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는 아시아의 역동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며,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로 전락하느냐, 강대국으로 뻗어나가는 국가로 비상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道는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의 생존전략으로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각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新파워 동아시아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아시아 지방정부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동아시아 번영의 불쏘시개가 될 이번 행사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기 영

Congratulatory Message

Local authoritie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design "The Maritime Silk Road for 21st Century"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on the occasion of the Pan-Yellow Sea Forum.

On behalf of 2.1 (Two point one) million Chungnam people,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welcome to you all to the 2015 Pan-Yellow Sea Forum, opening a new chapter of Asia in the 21st century.

First of all, I want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 such as Heejung Ahn,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and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to name just a few, - for thei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opening this meaningful forum to promote "Shared Prosperity in Asia."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tend my welcome to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travelled a long distance, taking time out of busy schedules: Kathleen Stephens,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Zhang Xiaoming, professor at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Shunji Cui, associate professor at the School of Public Affairs of Zhejiang University, Yukiko Fukagawa, professor at th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of Waseda University, and the keynote speaker, Choong-Yong Ahn,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The Pan-Yellow Sea defines where the Maritime Silk Road was, has been and will be.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rivals and partners throughout the history of East Asia. However, the tripartite efforts to achieve shared prosperity have been derailed by conflicting political and economical interests and have failed to make a significant progress. At this juncture, I believe local authorities in East Asia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earching for ways to promote friendly relations and jumpstart the momentum to guide the region towards sustainable future growth.

Recently, Asia's dynamic potential has grabbed the global attention.

Asian countries in the Pan-Yellow Sea region have shifted from the "workshop of the world" to become the marketplace of the world, emerging as the center of the global finan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markets. In the fast-changing world of politics, Korea indeed stands at the crossroads of becoming a country sandwiched between global superpowers or moving on its path toward a new global powerhouse.

In this regard, Chungnam places a greater focus on cooperation, not on competition, as a way to survive an era, where the Pan-Yellow Sea area plays a key role in the global economy. I am convinced that when local authorities in East Asia enhance their partnerships in a way that leverages their respective strengths and compensate for their respective weakness, countries in East Asia will together emerge as a new power in the world.

The Chungnam Parliament will provide full support and assistance in promoting shared prosperity among local authorities in the regio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Pan-Yellow Sea Forum, a stepping stone for East Asia's prosperity, and wish all the best for all participants.
Thank you.

November 20, 2015

Kiyoung Kim
Chairman of the Chungcheongnam-do Council

PROGRAM

Time	Program
13:30-14:00	Registration
14:00-14:10	Opening and Welcoming remarks
	Opening Address Hyunsoo Kang (President, Chungnam Institute) **Welcoming Address**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Congratulatory Message** Kiyoung Kim (Chairman, Chungcheongnam-do Council)
14:10-15:10	**Keynote Roundtable "Roles of Chungnam for the Era of Pan-Yellow Sea"**
	Moderator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Panelists :**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the Pan - Yellow Sea Community :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by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 "Talking Points Chungnam's Cross-Border Value Chain and Logistics Management in the Pan-Yellow Sea Rim" by **Ahn, Choong-Yong**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15:10-15:20	**Coffee Break**
15:20-16:30	**The 1st Session "Seeking out 'Peace Community' in East Asia"**
	Moderator :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Presenters :** ●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 Continuity and Change" by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 "Searching for a Peace Community in Yellow Sea: The roles to be played by two Koreas, China, and the US" by **Zhang Xiaoming**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Deputy Direct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king University) ● "The 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and Building the Peace Community" by **Joon-hyung Kim**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dong University)

November 20th(Friday), 2015 •
Venue : Lotte Buyeo Resort •

Time	Program
16:30-16:40	**Coffee Break**
16:40-18:20	**The 2ndSession "Pan-Yellow S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Moderator :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Presenters :** • "Promo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City-to-City (C2C) Level: Perspectives of City Diplomacy" by **Cui Shunji**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Zhejiang University) • "Local initiatives in Japan-China-Korea environment cooperation: The Frontier and the Challenges" by **Yukiko Fukagawa**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Waseda University) •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Chungnam in the Era of Pan-Yellow Sea" by **Sung Hoon Yi** (President, Sehan University) • "Maritime and Fishery Policies of Chungnam towards the New Era of Pan-Yellow Sea" by **Jaeyoung Huh** (Chair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 "The Era of Pan-Yellow Sea and the Choongnam's Strategy towards China" by **Ins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 Director, China Research Team, Chungnam Institute)
18:20-18:50	**Closing Roundtable**
	Moderator :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Panelists :**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Xu Jian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Director,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Choong-yong Ahn (Chairman,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18:50	Close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환영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축 사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
14:10-15:10	**기조 라운드테이블 "환황해시대를 위한 충남의 역할"**
	좌 장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패 널 : ● "충남에 대한 단상: 과거와 현재"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 "환황해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중국의 입장"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CIIS 학술위원회 주임) ● "화두 충남의 국경간 가치 사슬과 환황해 지역의 물류 관리"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5:10-15:20	커피 브레이크
15:20-16:30	**제1세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좌 장 :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 널 : ● "21세기 미국과 동북아시아 : 연속성과 변화"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 "황해 평화공동체의 모색 : 두 개의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의 역할" **장샤오밍**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 "동북아 안보구조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가능성"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시간 2015년 11월 20일(금)
- 장소 롯데부여리조트

시 간	프로그램
16:30-16:40	커피 브레이크
16:40-18:20	**제2세션 "환황해 경제와 환경 협력"**
	좌 장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패 널 : ● "도시간 환경협력 촉진 방안" **추이순지** (저장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일본, 중국, 한국 간의 환경협력에 있어 로컬 이니셔티브 : 개척자 정신과 도전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 ● "환황해시대의 충남 경제발전 전략"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 ● "충남 해양수산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환황해시대" **허재영**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환황해시대와 충남의 對중국 전략" **박인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 연구팀 팀장)
18:20-18:50	**폐회 라운드 테이블**
	좌 장 :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패 널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CIIS 학술위원회 주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8:50	폐회

Main Participants 주요 참석자



안희정
Heejung Ahn

Governor, Chungnam Provinc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majoring in philosophy, Director of Local Government Executive Institute, Director of Institute for Better Democracy, the 36th and 37th Governor of Chungnam Province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제36대와 37대 충청남도지사를 연임하고 있다.



문정인
Chung-in Moo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Yonsei University and editor of English quarterly Global Asia, Director of KDJ Presidential library at Yonsei University, Council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Unification Preparation, Consultant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orked as Dean of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Minister level),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Taught at Williams College, the University of Kentucky, UCSD, and visiting professor at Keio University and Peking University.
As academic achievements, Moon published around 40 books and articles in thesis and academic paper including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World Development, etc. Recent publications include 『What does Japan think about now?』,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Ask about the future of China』(Korean and Chinese),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Currently working as a consultant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d Republic of Korea Air Force. Worked as advisory to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ngaged in defense reform as a member of Defense Reform Committee from 2005 to 2007, a only scholar who participated as a special entourage during the first and second inter-Korean Summit. Received Public Policy Scholar Award from Woodro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Lixian Scholar Award from Peking University, and UCSD Pacific Fellowship Award. Worked as Vice President of ISA and President of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Dispatched as Experts/eminent persons for ASEAN Region Forum and was a co-chairman for the first and second round of ARF-EEP meeting in June, 2006 and February, 2007.

문정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영문 계간지 Global Asia 편집인이다. 또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및 외교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및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대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윌리엄스대학교, 켄터키대학교, 듀크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샌디에고캠퍼스(UCSD)에서 가르치고 게이오대학교 및 북경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연구 업적으로 40여권의 편저서 및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World Development 등 각종 논문집과 학술지에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출간물로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중국의 내일을 묻다』(국문 및 중문),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Debates, Issues, and New Order』,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등이 있다.
현재 외교부, 국립외교원, 대한민국 공군 자문위원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 국방부 자문을 맡은 바 있다. 2005-2007년 국방개혁추진단 위원으로 국방개혁에 참여하였으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유일한 학자이기도 하다.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 Public Policy Scholar Award, 북경대학교 Lixian Scholar Award, UCSD Pacific Fellowship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미국 국제정치학회 (ISA) 부회장 및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EEPs)로 파견되어, 2006년 6월 및 2007년 2월 1차·2차 ARF-EEP 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안충영
Choong-yong Ahn

Working as a Chaired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and Chairman of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from August, 2014. B. A. from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M. A. from University of Hawaii, Ph. D from Ohio State University in 1972.
Worked a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Department of Politics and Economics, Chung Ang University from 1974 to 2006, Chairman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from 2010 to 2012, Director of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from 2002 to 2005, Chairman of APEC Economic Committee from 2000 to 2004,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from 1998 to 2002,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from 1997 to 1998.
Main books and articles include 「現代東アジア經濟論」 日本 岩波書店, 2000, 「現代韓國·東 Asia 經濟論」 博英社, 2001. 「現代東亞經濟論」 北京大 出版社, 2004,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rst Step Towards Integration」, co-compiler. 博英社, 2003. Published articles i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and books includ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 North Holland Monograph.
Received the 13th Free Economy Publication Culture Awar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irst 〈NIRA 大來 (Okida) 政策研究賞〉 under Japanese Prime Minister's Office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14th Economist Award in 1984 by Maeil Business Newspaper, 2014 Korea Investment Awards (Brass Industry Prize).

안충영은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이자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2014.08-현재)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석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1972)를 받았다.
안충영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1974-2006),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10-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2002-2005), APEC 경제위원회 의장(2000-2004),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998-2002),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1997-1998) 등을 역임하였다.
안충영 위원장의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現代東アジア經濟論」日本 岩波書店, 2000,「現代 韓國·東아시아 經濟論」博英社, 2001.「現代東亞經濟論」北京大 出版社, 2004,「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공동 엮음. 博英社, 2003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cs, European Economic Review, Japanese Economic Review, Asian Journal of Economics, Global Asia, North Holland Monograph 등 세계적 학술지와 단행본 시리즈에 논문을 등재 하였다.
안충영 위원장은 제13회 전경련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수상. 일본 수상실 산하 總合研究開發機構(NIRA) 제정 제1회 〈NIRA 大來 (오키다) 政策研究賞〉 수상. 매일경제신문사 제정 1984년도 14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2014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어워즈(동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Kathleen Stephens was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8-2011. She is now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She also teaches at Hank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an Endowed Chair Professor.
Ambassador Stephens' diplomatic career also included: U.S. Charge 'd Affaires, New Delhi, India, 2014-2015. Acting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2012.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Affairs, 2005-2007.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3-2005.
Ambassador Stephens also served in earlier diplomatic assignments in Korea, China, and Europe. She was a Peace Corps volunteer in Korea 1975-1977.
Ambassador Stephens holds a Master's degree from Harvard University and an honorary doctorate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캐슬린 스티븐스는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고,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의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한국 외국어 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2014-2015년 인도 주재 대사 대행을 역임했고, 2012년 공공 외교와 공무에 대한 국무부 차관 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2005-2007년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 고문, 2003-2005년에는 유럽과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외교관 시절 한국, 중국, 유럽에서 근무했다. 1975-1977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스티븐스 대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충남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쉬지앤
Xu Jian

Professor Xu Jian, born in 1962, is now Senior Fellow of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CIIS) and Chairman of the Academic Council of CIIS. He worked as Minister Counselor at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o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0-2012, Coun-selor at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PRC to the United Nations in 2008-2010, Candidate Representative of the PRC to the United Nations in 2010, Vice President of CIIS in 2003-2008. Heworked as a Senior Research Fellow in the former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CIS) of the State Council in 1993-1999 as well. He had a PhD degree in the University of Bristol in 1993. He writes extensively (about 300 articles and essays) in both internally circulated reports and publicly circulated journals, and is the editor or a coeditor of a number of books, covering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international politics, world economy, great power relations, wi-th special focus on the United States, Russia,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and China's diplomacy. He has the honor of taking the special allowance for outstanding academic contribu-tions released by the State Council. He is a listed top-level expert for direct contact by the central authorities of China.

중국 국제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 / 국제 문제 연구소 학회 위원회 소장
1962년생인 쉬 지엔 교수는 현재 중국 국제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국제 문제 연구소 학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2012년 주러 중국대사관 관리 참사관을 역임했고, 2008-2010년 UN 주재 중국 상임 위원, 2010년 유엔 중국 후보 대표, 2003-2008년 국제 문제 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1993-1999년 전 국무원 국제 연구 중국 센터 선임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다. 1993년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 보고서와 공공 학술지에 약 300편의 논문과 에세이를 발표했으며, 국제 정치, 세계경제, 열강 관계 특히 미국, 러시아, 아태 지역 안보, 중국의 외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고 공편했다. 뛰어난 학문적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원에서 수여하는 특별 보조금을 수상하기도 했다. 쉬 지엔 교수는 중국 중앙 당국에 의해 탑 레벨 전문가 명단에 속해있다.



장샤오밍
Zhang Xiaoming

Zhang Xiaomi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sociate editor of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Beijing, China, where he has taught since 1988. He was educated at Peking University (BA in 1985, MA in 1988 and Ph.D. in 1993). He has been working on Cold War history, Chin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US-East Asia relations, and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e is the author of the following books in Chinese: George F. Kennan's Containment (1994), Cold War and Its Legacy (1998), Chin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2003),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Theory, and View on China (2010),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US-East Asia Relations (2011). He also published English articles i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Asian Perspective, East Asia: An International Journal, etc. He was a fellow of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at Woodrow Wilson Center (1994), fellow of Korea Foundation at Korea University (1998), Fulbright research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1999-2000), guest researcher at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0), visiting professor at Chuo University, Japan (2005), and visiting senior scholar at 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 (2007-2008).

장 샤오밍은 베이징 북경 대학교 국제 관계 대학원 교수이자 국제 지역학회지의 부편집자로, 1988년부터 교편을 잡아왔다. 북경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85년 학사, 1988년 석사, 1993년 박사). 장 샤오밍 교수는 냉전 역사, 인접국과 중국의 관계, 미-동아시아 관계, 국제 관계 이론을 연구해왔다. 중국어로 된 다음 저서를 출판했다; George F. Kennan의 봉쇄 (1994), 냉전과 그 유산 (1998), 중국과 인접국의 관계 (2003), 영국 학파의 국제 사회론: 역사, 이론, 중국에 대한 견해 (2010), 미-동아시아 관계에 대한 소개 (2011). 이 외에도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Asian Perspective, East Asia: An International Journal 등에 영어 논문을 발표하였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 국제 역사 프로젝트 연구원 (1994), 고려 대학교 한국 재단 연구원 (1998), 하버드 대학교의 Fulbright research scholar (1999-2000),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2000), 일본 주오 대학의 방문 교수 (2005), 런던 정경대의 방문 선임 연구원 (2007-2008)을 역임한 바 있다.



김준형
Joon-hyung Kim

–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ndong University

Dr. Joon Hyung Kim is Professor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Handong Global University. His areas of specialization and interests ar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east Asian relations including US-China, US-ROK,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e teaches courses such as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He was also invited as a Fulbright Visiting Scholar to George Mason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SA(2005-2006) and taught several courses including US-Korea Relations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 Two Korea. He participated in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Policy Planning and evaluated Roh Moo Hyun Government's foreign policy for the first two years of incumbency(2004-2005). Since early 2007, Dr. Kim has involved in the Korea Institute for Future Strategies (KIFS), a renowned network based think-tank, as a Director of Center for Diplomacy and Security. Since 2011, Dr. Kim has involved in the Korea Peace Forum, another renowned network based think-tank specialized in the peace and unificatio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n executive director in 2013. Dr. Kim has completed a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US foreign policy and US-ROK alliance issues. He has also published numerous books on diverse issues. Dr. Kim earned his Bachelor's Degree at Yonsei University(1986), and M.A. and Ph.D.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uring his graduate studies, he worked as Research Assistant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and participated in the Korea Working Group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1994.

김준형은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이다. 그의 전문분야와 관심영역은 국제관계이론, 미국-중국, 미국-한국, 남북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관계이다. 그는 국제관계입문, 국제정치이론, 미국의 외교정책, 국제기구,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이론 소개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한 2005-2006년도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에서 풀브라이트 공공 및 국제문제부문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미관계, 동아시아국제정치, 남북한에 대하여 여러 과정에서 강의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첫 2년(2004-2005)간 정책기획 및 평가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했다. 2007년 초 이후로 네트워크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KIFS)에서 외교안보센터장으로 있었다, 2011년부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네트워크 싱크탱크인 한국평화포럼에 참여해왔으며 2013년에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미동맹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논문을 저술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을 집필했다. 연세대에서 학사학위(1986), 조지워싱턴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 취득하였다. 대학원 재학 중 미국평화연구소 (USIP)에서 연구조교로 근무하였고 1994년 최초의 북한 핵 위기 당시 한국 소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추이순지
Cui Shunji

Shunji CUI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Deputy Direct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chool of Public Affairs at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China. She is also a Research Fellow at Zhejiang University's Center for Non-Traditional Security and Peaceful Development Studies. She was awarded a British Academy Visiting Fellowship in 2010 at LSE, UK; and a Fulbright Scholar-in-Residence in 2012-13 and taught at Marian University, USA. Her research has dealt with Inter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and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with reference to China-Japan and East Asian relations. Her publications include: 'Conflict Transformation: East China Sea Dispute and Lessons from the Ecuador-Peru Border Dispute,' Asian Perspective (2014); 'Human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Rethinking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2014, in Chinese); 'Beyond History: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ocie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3); and 'Problems of Nationalism and Historical Memory in China's Relations with Japan,'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2012).

추이순지는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저장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학과 부국장이다. 저장대학교 비전통 안보와 평화로운 발전 연구 센터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다. 2010년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British Academy Visiting Fellowship, 2012-13년에는 Fulbright Scholar-in-Residence를 받았고, 미국 마리안 대학교에서 재직했다. 추이순지의 연구는 국제 안보, 인류 안보, 중-일, 동아시아 관계에 대한 비전통 안보 협력을 다룬다. 출간물은 다음과 같다. '분쟁의 변혁: 동중국해 분쟁과 에콰도르-페루 국경 분쟁의 교훈,' 아시아적 관점 (2014); '인류 발전과 인류 존엄성: 인류 안보에 대한 재고',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2014, 중국어); '역사를 넘어: 비전통 안보 협력과 동북아시아 국제 사회의 구성,'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3); '국가주의의 문제와 중-일 관계의 역사적 기억,'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2012).



유키코 후카가와
Yukiko Fukagawa

Yukiko Fukagawa is currently a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Waseda University and a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After undergraduate program at Waseda, she studied at Yale University for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nd finished Ph.D program at Waseda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tudies. Her major interest lies in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especially Korea, including their industrial/trade policies. She worked for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and Long-Term Credit Bank Research Institute (LTCBR) before joining the faculty member of Aoyama Gakuin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okyo before coming back to Waseda.
She engaged in many consultation and advisory activities for the government, such as the Committee for Foreign Exchange in the Ministry of Finance, the Committee for Industrial Structure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etc... She served as the Chairman of Economic Section in "Japan-Korea Joint Study for the New Era" project opened in 2013. Her recent publication includes "Korea: The Development Experience and the Aid Policy",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5), co-ed with Ohtsuka and Kurosaki, Yuhikaku, and Northeast Asia and Japan-Korea Relations in Post Financial Crisis (2013), co-ed with Yul Sohn, Institute of Asia Studies, Waseda University..

유키코 후카가와는 일본 와세다대 정경대 교수, 연세 대학교 국제 대학원 방문 교수이다.
와세다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예일 대학교에서 국제 개발 경제 분야 석사를 취득하고, 와세다 경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유키코 후카가와는 동 아시아 특히 한국의 산업/무역 정책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다. 일본 무역 진흥 기구와 장기 대출 은행 연구소에서 일하다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와 동경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후, 와세다 대학교로 돌아왔다.
재무성 외환 위원회, 경제 산업성 산업 구조 위원회 등 정부를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해왔다. 2013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한-일 공동 연구"의 경제 부문 위원장을 역임했고, 최근 Ohtsuka, Kurosaki, Yuhikaku와 "한국: 발전 경험과 원조 정책"을 공동 편집해 일본의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출간했고 (2015), Yul Sohn과 공동 편집한 와세대 대학 아시아 연구회의 금융 위기 이후의 동북 아시아와 한-일 관계 (2013)를 출간했다.



이승훈
YI SUNGHOON

President of Sehan University, Co-chairman of the April Society, and Vic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Presidents.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received an MBA degree from School of Busines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h. D from Graduate School of Jeonju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Worked as Director General for 21 Century Korea-China Exchange Association since 2001, has been focusing on nurturing China experts including creation of a dedicated department to nurture resources to lead the global era at Sehan University and establishment of Korea-China Joint Graduat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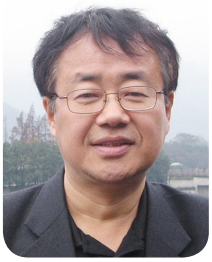
이승훈 박사는 세한대학교(SEHAN UNIVERSITY) 총장이자 사단법인 4월회 공동의장 및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美 미시간대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전주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년부터 21C한중교류협회 지도자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글로벌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한대학교에 전담부서 신설, 한·중 합작대학원 설립 등 중국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재영
Jaeyoung Huh

– Chair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Majored in Coastal Engineering and Estuary Hydraulic at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s teaching subjects related to water resources including hydraulic, hydrology, and water resource engineering, etc at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at Daejeon University.
Head of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Chungcheongnam-do, Head of Maritime and Fisheries department under the committee.
Interested in utilization of sustainable coastal areas and beach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covery of coastal areas and beaches.

토목공학과에서 해안공학과 하구수리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수리학, 수문학, 수자원공학 등 수자원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해양수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안 및 연안의 이용과 그것을 위한 해안 및 연안의 환경보전 및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박인성
Insung Park

– Research Fellow, Chungnam Institute
Studied at University of Seoul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Urban planning, MA), Renmin University of China 中國人民大學 (Regional economy, Ph.D). Worked as a researcher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for 20 years.
Visiting Scholar at Geography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 中国科学院 (Jan, 1993~Oct), guest researcher at Shanghai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Ins.上海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Feb, 2000~Aug), guest professor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中國人民大學 (Sep, 2003~ Aug, 2004), Professor, School of Land Management and Urban Development at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China from Sep, 2004 to 2014. Director of China Research at Chungnam Institute from Sep, 2014
Major publications include 「Land Reform Experience in China」(co-author, Hanul: 2011),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Axis in China」(Hanul: 2009), 「Status of Construction Industry in China and investment Strategy」(co-author, Bomundang: 2007), 「Economic Geography of China」(co-author, Hanul).

서울시립대(건축공학),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계획, 석사), 中國人民大學(지역경제, 박사)에서 공부했고, 국토연구원에서 20여년 연구직으로 근무했고, 최종직위는 연구위원이다.
中国科学院 지리연구소 경제지리부 방문학자(1993.1~10)와 上海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초빙연구원(2000.2~8), 中國人民大學 초빙교수(2003.9~2004.8)로 근무했고, 2004년 9월 학기부터 2014년까지 중국 항저우(杭州)시에 소재한 저장(浙江)대학 토지관리학과와 도시발전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14년에 9월부터 중국에서 귀국하여 현재까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중국의 토지개혁경험」(공저, 한울: 2011),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한울: 2009),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공저, 보문당: 2007), 「중국경제지리론」(공저, 한울: 2000) 등이 있다.



강현수
Hyunsoo, Kang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Graduated from School of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 A. and M. A from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Joongbu University and worked as Commissioned Researcher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on Northeast Asia Hub, and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Finished Post Doc as a visiting professor at Oxford University, U.K. and visiting professor at MIT.
Majored in urban and region planning and studied sustainable development. Kang has been working as a president of Chungnam Institute, a think-tank for Chungnam region. Major publications includ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the World》 (co-author, 2004), 《Theory of New Area Development》 (co-author, 2009), 《Rights to Cities》 (2010), 《Urban Policy in the Age of Low-growth》 (co-author, 2011), 《e-Topia》 (2001), 《Technopole of the world : Creating 21c Industrial Complex》 (co-translated, 2006), 《Mobility》 (co-translated, 2014).

강현수는 현재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중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토연구원 위촉연구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학위후(Post Doc.)과정을 거쳤고, 미국 MIT 대학교 방문교수로 재직했다.
전공은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다. 2013년부터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세계의 지역혁신체계》(공저, 2004), 《신지역발전론》(공저, 2009), 《도시에 대한 권리》(2010),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공저, 2011), 《인권도시 만들기》(2014) 등이 있고, 역서로 《e - 토피아》(2001), 《세계의 테크노폴 : 21세기 산업단지 만들기》(공역, 2006), 《모빌리티》(공역, 2014)등이 있다.